

하나님 뜻을 따른 후계자

열왕기상 1:38-53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 학생이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력을 쏟은 연구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도용되었다는 어떤 물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저 억울함만 호소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은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나를 위해 최선을 계획하고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연구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아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열왕기상 1:38-5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다윗과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야는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비롯해 여러 신하가 아도니야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엔로겔이라는 샘에서 잔치를 벌여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고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이전에 다윗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삼하 12:24-25)을 통해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 즉위식을 열게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즉위식은 기혼 샘에서 열리고, 새 왕의 즉위를 알리는 양각 나팔의 소리는 아도니야가 있던 엔로겔까지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야의 지지 세력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야는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그 당시 생명 보전책이었던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조건부로 아도니야를 살려 두고 왕위를 견고히 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제사장 사독이 기혼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 나팔을 불자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39-40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라고 외치고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솔로몬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는 다윗의 친위대를 이끌고 기혼으로 가서 왕의 즉위식을 진행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다윗 왕조가 솔로몬에게 계승됩니다. 양각을 부는 것은 기름 부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축하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야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묻지도 않고 지지자들과 함께 즉위식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먼저 움직였고 지지자를 모으는 수고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잔치를 마칠 때쯤 아도니야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고, 요나단을 통해 솔로몬의 즉위식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도니야와 함께 있던 그의 지지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결국 아도니야만 남습니다. 다윗의 인정을 받지 않은 아도니야의 즉위식은 한낱 반역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던 기혼과 아도니야가 있던 엔로겔은 약 1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앞세웁니다. 교만으로 인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못 판단한 아도니야는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광스런 날이라 백성이 열렬히 축하합니다. 얼마나 크게 축하했는지 땅이 갈라질 듯했습니다.

적용과 나눔 I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명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행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아도니야는 자신을 왕으로 높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야가 먼저 할 일은 아버지 다윗에게 묻는 것이고, 또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성공의 길을 찾아 지지자를 모으고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모든 사역과 관계에서는 권위에 대한 순종에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속한 일터와 가정에 리더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롬 13:1~2).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불만과 투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 일터와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순복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경건한 태도이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관찰과 묵상 II

아도니야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에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나요?(50-53절)

아도니야는 성소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살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솔로몬은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고 말한 뒤 아도니야를 살려 줍니다.

성소 제단의 뿔을 잡는 행위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성소의 번제단 네 모서리는 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이곳에 발랐기 때문에 제단의 뿔은 '속죄와 용서'를 의미했습니다. 이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해를 입힌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 피난처로 삼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반역자가 된 아도니야는 자신이 숙청될 것을 직감하고, 제단 뿔을 잡은 채로 목숨을 살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야를 조건부로 용서합니다.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솔로몬은 형을 죽이지 않고도 지혜롭게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형제에게 복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과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적용과 나눔 II

아도니야를 향한 솔로몬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의 동기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악한 죄를 짓고 죄인의 길에 서며 교만한 자리에 앉는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과 결정 권한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지만, 실상 그 주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물, 그리고 맡겨진 사람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일군 사업체라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 관계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태도입니다.